

# YOUTH CSR CONFERENCE

특별 강연 연사 소개 ‘오준’ 前 유엔 대사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es.”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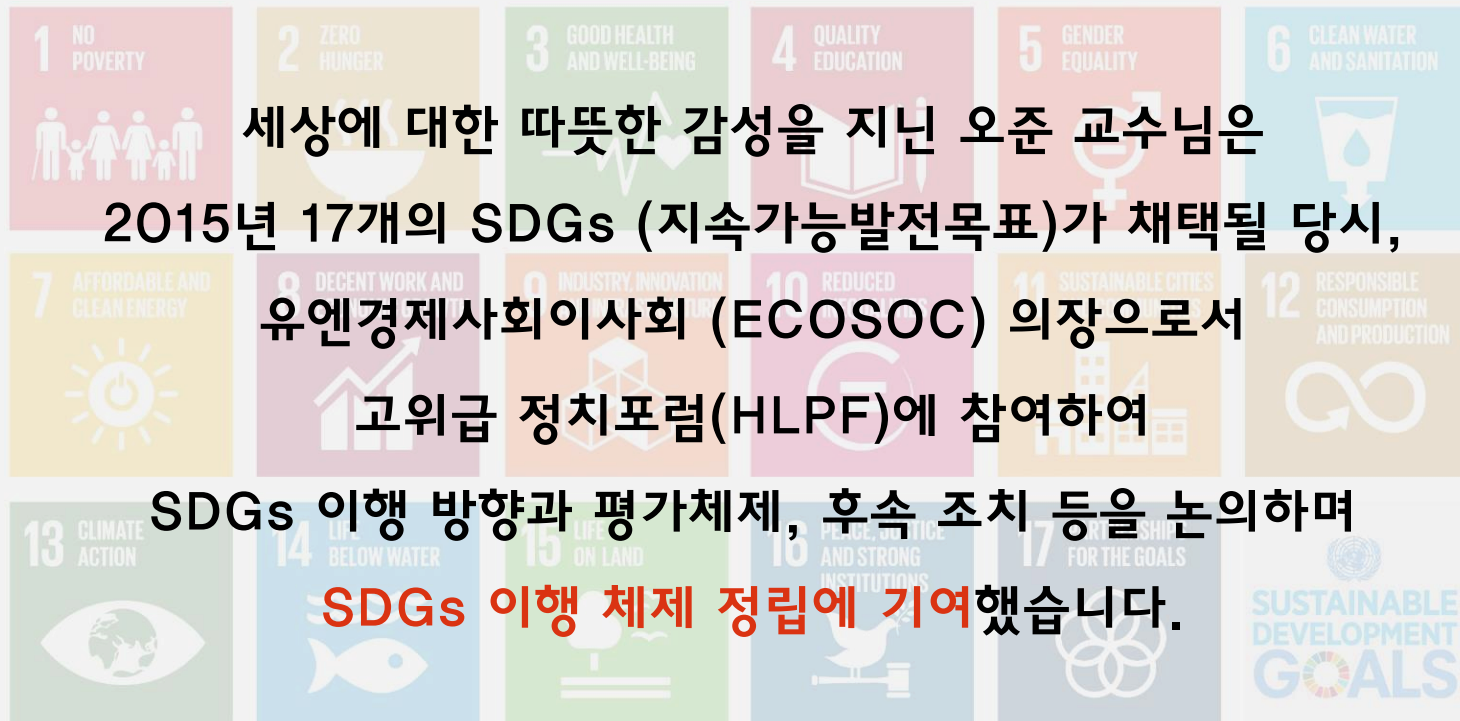


2014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있었던  
전 UN대사 오준 교수님의 연설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교수님의 연설은 그 진정성으로  
전 세계에 많은 울림을 주었으며,  
특히, 통일을 잊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세상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오준 교수님은  
2015년 17개의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될 당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으로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참여하여  
SDGs 이행 방향과 평가체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며  
SDGs 이행 체제 정립에 기여했습니다.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16년 12월,  
30여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 하신  
‘영원한 외교관’, ‘디플로 휴머니스트’ 오준 교수님.

인생의 제2막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홍보대사를 통해  
**장애인 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으로서 **아동 권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

**YOUTH CSR CONFERENCE**

특별강연 연사 **‘오준’**

現)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前)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

저서) 생각하는 미카를 위하여 (2015)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오준 교수님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청년들이  
Comfort Zone을 확장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탐구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길 강조합니다.

“Quest is always right!”

오는 11월 3일, 오준 교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UN Global Compact의

**YOUTH CSR CONFERENCE** 에서 만나보세요!



Network Korea